

2. 2016년 재정운영 방향

가 재정전망

□ 내년도 세출수요 도정사상 최고조

- 세입은 내수 회복세 양상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,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
 - ▶ 《지방세》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소폭 증가 예상
 - ▶ 《교부세》 경제상황 불확실성, 내국세 결손 등으로 금년 수준 예상
- 반면, 세출은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등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과 옥계지구 개발보상, 전국소년체전 등으로 금년 대비 순수 도비부담 세출수요는 대폭으로 증가 전망
 - ▶ 동계올림픽(1,907억원),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(198억원), 생계급여(256억원)
 - ▶ 옥계지구 토지보상(144억원),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학생체전(43억원) 등

⇒ 이에 따른 재정 부족액이 최소 1,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

나. 재정운용 방향

□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해 지방채 발행 최소화

-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
 - ▶ 신규사업 억제, 사업별 투자시가기간 조정 등 현명한 투자
 - ▶ 실국 자율편성사업을 예산신청 한도액으로 전환, 효율적 세출구조 조정
 - ▶ 민간보조금 사전절차이행제도 엄정 관리로 누수 없는 예산성과 관리
- 도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
 - ▶ 올림픽 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림픽 연계사업 적극 추진
 - ▶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, 취업지원센터 건립
 - ▶ 전략적 기업유치,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
- 사람 중심의 따뜻한 강원도구현
 - ▶ 어르신, 장애인, 여성 등 취약·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정책 구현
 - ▶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,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공동체 구축

⇒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과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관리 기조 지속 유지

□ 예산편성 방향 및 분야별 주요사업

- 실국 자율 편성제를 신청 한도제로 전환,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반영(신청한도 1,113억 - 예산반영 1,035억, △78억원 절감)
- 업무추진비 절감(기관운영 △21%, 시책추진 △3%), 국외여비 동결 등 기본운영경비 절감운영
- 복지재정을 제고와 민생안정, 도민 안전장치 기반은 우선 투자
- 대규모 사업의 투자기간 조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(최소화 1,500억원)

《 분야별 주요사업 》

①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및 붐 조성

- 경기장 2,639억, 진입도로 1,811억, 개·폐회식장 286억, 드림프로그램 12억
- G-2기념행사 16억, 장애인올림픽대회 운영비 27억, 문화도민운동 13억

② 민생경제 행복 2배 실현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

-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22억, 새농어촌 우수마을(2차) 18억, 오색삭도 10억
- 귀농 정착 2.6억, 청·장년 일자리 5억,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71억, 약자지결 1.6억
- 국지도확포장 347억, 친환경무상급식 199억, 산악관광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

③ 체감복지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구현

- 대학생 장학금 12억, 100세 어르신 일자리 44억, 농어촌 희망택시 5억
- 장수수당 2억, 자살예방확대 7억, 경로당 운영비 25억, 기초연금 3,573억
- 누리과정 보육료 656억, 영유아 보육료 889억, 노인일자리 225억

④ 글로벌화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랜드마크 개발

- 해외사업본부 설치 4억, 레고랜드 교량·상하수도 231억, GTI박람회 22억
- 도내공항활성화 49억, 강원관광상품 면세점 운영 2억, 국제회의산업 지원 5억

⑤ 재난안전 안전한 생활기반 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

- 소방청사 101억, 하천재해예방 770억, 소하천정비 212억, 노후소방차량 76억
- 지방도 유지보수 60억, 재해위험지구정비 296억, 급경사지 붕괴 340억